

心系疾患을 중심으로 한 <傷寒論>의 附子 活用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지형 · 이원철*

ABSTRACT

A study on a paradigm of Radix Aconiti(附子) in the treatment of heart-systemic disease(心系疾患) through 'Sanghanron'(傷寒論).

Ji-hyoung Kim, O.M.D., Won-chul Lee, O.M.D., Ph.D.
Dep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oul.

The aim of the study was the application of Radix Aconiti(附子) in the treatment of heart-systemic disease(心系疾患).

We inquired into the prescriptions with Radix Aconiti(附子) in the treatment of heart-systemic disease(心系疾患) in many other aspects through 'Sanghanron'(傷寒論).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The prescriptions with Radix Aconiti(附子) form about 18%, it's related text forms about 11%. Radix Aconiti(附子) was used with other 20 kinds of herbs in 7 categories—hyepyo(解表), jesp(除濕), selyul(泄熱), hwagihyengsu(化氣行水), onjungs-anhan(濇中散寒), ikum(益陰), anhejitong(安蛔止痛). Among these herbs, the combination

접수일 : 1999. 6. 1

심사일 : 1999. 7. 15

with Zingiver officinale Roscoe(乾薑) is focal usage, because the combination was used in 8 prescriptions out of 20.

A fresh Radix Aconiti(附子) which was used with Zingiver officinale Roscoe(乾薑) is efficacious against poison of Radix Aconiti(附子). When this combination was used, it had been boiled for a long time in most cases, it is also helpful of counteracting poison. A Steamed Radix Aconiti(附子) was used with Zingiver officinale Roscoe (生薑.)

In the special feature of dosage of Radix Aconiti(附子), it was considerably used in many different conditions which includes strength or weakness of patients, and the critical or slight condition of illness. In the taking frequency and dosage of the medicine, it was applied the same.

There are 2 methods of boiling, one is boiling separately from other herbs and the other is boiling all together. When boiling seperately, it works more quickly and strongly. In the case of severe 'rehan'(裏寒) which refuses warmed medicine, it was used with 2 other herbs(猪膽汁, 人尿) that take down from yang(陽) to ying(陰). The foci of prescriptions that contain Radix Aconiti(附子) is the type of Sayektang(四逆湯類), because Gungangbujatang(乾薑附子湯) does the important work in the prescriptions. The paradigm of Radix Aconiti(附子) treated palpitation, edema, dizziness, confusion, numbness, iced limbs in the treatment of heart-systemic disease(心系疾患).

In the usage of Radix Aconiti(附子), the above results need to be referred and further clinical studies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Radix Aconiti, heart-systemic disease, Sanghanron

I. 緒論

<傷寒論>은 晉漢代 張仲景의 저작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기록으로 후세에 존경받는 醫聖으로써 한의학의 辨證論治에 관한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¹⁾ 그리고, 治法方藥의 치밀함으로 후대 의가들의 治法方藥의 기준

을 제시하였다. 張은 <傷寒論>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附子 活用예를 보여주었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活用하였다. 附子は 미나리아재비과(毛茛科)에 속한 다년생 초목인 재배종 바꽃의 塊根에 附生한 子根^{2,3)}으로 辛大熱 有毒하며, 元陽을 補助하는 主藥으로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⁴⁾한 성질을 가진 陽中之陽의 약물이다. 固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²⁾하는 효능이 있어 大汗亡陽, 吐利厥逆, 心腹冷痛, 脾泄冷痢, 脚氣水腫, 風

寒濕痺，蹠蹻拘攣，陰疽瘡漏，中寒中風，痰厥氣厥，柔痙癱瘓，小兒慢驚⁵⁾ 등 일체의 沈寒痼冷之疾을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本草正義>에서는 “附子は 본래 辛溫大熱하고 잘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十二經의 純陽을 운행시키는 중요한 약으로서 밖으로는 皮毛에 이르러 表寒을 제거하고 안으로는 下元에 까지 이르러 찬 것을 덥혀준다. 附子は 内外를 통하기에 대개 三焦，經絡이나 모든 장부에 眞寒이 있을 때 치료 못하는 것이 없다.”⁶⁾고 하여 다양한 효능을 설명하였다.

附子の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附子の 성분 중에서 aconitine은 혈압상승작용, 혈관확장작용, 신진대사촉진작용, 국소마취작용을 가지며, mesaconitine은 진통작용, 항염증작용을 하며, higenanine과 corynein은 강심작용을 한다고 하였다.⁷⁾ 그리고, 심장에 미치는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심근수축을 촉진시켜 속이나 심부전시 강심작용으로 전신순환을 개선하며, aconitine 분해산물에 의한 일정한 진통작용이 있다.⁸⁾ 간접적인 심근수축⁹⁾이나 強心利尿효과에 의한 陰證의 浮腫감소¹⁰⁾는 실험이나 임상예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傷寒論>에서 표현된 附子 活用方 20예를 통해 附子 活用の 특징을 살펴보고 附子の 活用に 있어 心系領域 질환의 치료범위와 이해를 넓히는데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결과를 발표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연구방법

- (1) <傷寒論>에서의 附子 活用方 20예를 통하여 附子 活用の 특징을 살펴보았다.
- (2) 附子 活用方の 조문분석, 活用증상분석, 방해를 살펴보았다. 해당조문과 처방은 <康平傷寒論>¹¹⁾을 참고하였고, 活用증상의 분석은 <傷寒論條文表解>¹²⁾를 참고하였다. 조문과 처방 내용은 부록으로 따로 하였다.

- (3) 附子와 함께 活用된 주요 약물配伍와 치료범위를 분석하였다.
- (4) 附子와 合用약물의 분류를 통해 치료범위를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 (5) 附子와 活用된 처방의 구성 약물의 活用빈도를 분석하였다.
- (6) <傷寒論>에서 附子の 製法, 用量, 煎湯法 및 服用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7) 附子 活用方の 處方 및 配伍약물의 가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중심 약물配伍와 중심 處方을 살펴보고 附子 活用方이 치료할 수 있는 心系領域 질환을 살펴보았다.
- (8) 心系領域 질환은 <東醫心系內科學>¹³⁾의 구성을 참고하여 心悸, 怔忡, 動悸, 心胸痛, 頭痛, 眩暈, 中風, 類中風, 厥, 痙病, 痿, 痺, 昏迷, 癲狂癱, 癡呆, 健忘, 發熱, 浮腫, 喘證, 血證 등을 선정하여 부자 活用方の 證狀을 살펴보았다.

2. 附子 活用方の 분석

(1) 桂枝加附子湯

- 1) 原因：發汗 汗不如法 致陰陽兩傷
- 2) 證狀：汗漏不止 - 衛陽不固 營陰滲泄
惡風 - 衛陽已傷 表邪未解
小便難 - 汗多于外 陰虧于內
四肢微急 難以屈伸 - 陽氣不能溫照
四肢 陰液不能濡養筋脈
- 3) 病機：誤汗傷陰 表證未解
- 4) 方解：桂枝湯 - 調和營衛 解肌發表,
附子 - 大辛大熱 溫經回陽

본방은 桂枝湯에 附子一味를 가한 處方으로, 桂枝湯을 活用하여 離中陽虛로 인해 汗液을 수렴하지 못하므로 心陽을 보하여 陽密하게 하여 漏汗을 멈추게 하고 惡風을 물리친다. 그리고, 坎中陽虛는 반드시 附子를 活用하여 腎陽을 固攝하게 하니 回陽하게 되어 小便自利하게 되고 사지가 柔함을 얻

게 된다고 하였다.¹⁷⁾ 즉, 桂枝湯으로 調和營衛 解肌祛風하게하고, 附子로서 溫經復陽 固表止汗하게 하니, 邪氣가 거하고 陽氣가 왕성하게 되고, 津液이 회복하게 된다.¹⁵⁾

5) 應用

- ① 鼻衄 : 已投寒涼止血劑未效 或反而出血更多者 脈微細軟芤遲 苔白 溲清爲主¹⁴⁾
- ② 濕家骨節疼痛 或半身不遂 口眼喎斜者 或身體麻痺者 或頭痛劇者(桂枝 芍藥 大棗 生薑 6g 蒼朮8g 甘草4g 炮附子2g)¹⁸⁾

(2) 桂枝去芍藥加附子湯

- 1) 原因 : 表證誤下以後
- 2) 證狀 :
脈促 - 心陽被傷 正邪抗爭 陽遏不伸
胸滿 - 胸陽被傷 陰邪上逆 陽不外達
微惡寒 - 衛陽大虛 表邪已陷故
- 3) 病機 : 心陽不振 或兼營衛不調
- 4) 方解 : 桂枝去芍藥湯 - 宣陽解表和中,
附子 - 溫經扶陽

太陽病 誤下후 邪氣가 胸中에 陷入하여 正氣가 邪氣와 싸워 外出하려는 桂枝去芍藥湯의 證狀에 비해 衛陽의 虛가 보다 심하여 微惡寒의 症狀를 겸하였다. 最古本으로 여겨지는 康平傷寒論에도 역시 微惡寒으로 되어 있으나,¹¹⁾ 微惡寒의 해석에 있어 注가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成無己는 원문 그대로 微惡寒 이라고 하였고, 陳修園은 脈微惡寒으로 주하였다.¹⁵⁾ 다른 견해는 宗문을 살펴볼 때 桂枝去芍藥湯에 원래 惡寒이 있다. 그런데, 桂枝去芍藥加附子湯이 惡寒보다 輕한 微惡寒이라면 굳이 附子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畏寒이라고 註하기도 하였다.¹⁶⁾ 본방은 桂枝湯의 調和營衛의 處方에서 酸寒한 芍藥을 빼서 陰氣가 流行하게 하고, 陰氣가 凝聚하여 생긴 微惡寒은 生薑과 大棗로서 邪氣를 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하여 辛熱한 附子를 가한 것으로 純陽之劑라고 하였다.

桂枝湯의 配伍를 통해 설명해 보면, 桂枝湯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軸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一陰一陽이 調和된 桂枝湯에서 芍藥을 빼므로써 芍藥과 甘草配伍의 酸甘化陰하는 一陰의 작용이 약해지고 桂枝去芍藥湯은 扶陽之劑가 된다. 여기에 附子의 辛熱함을 더함으로써 桂枝와 甘草의 辛甘化陽을 도와 純陽之劑가 된다고 하였다.¹⁷⁾

(3) 甘草附子湯

1) 證狀 :

- 骨節煩疼 - 風濕留滯關節 疼痛不休
- 掣痛不得屈伸 - 索引筋脈作痛 屈伸不便
- 近之則痛劇 - 疼痛拒按 觸之痛劇
- 汗出短氣 - 衛外陽虛則汗出 裏虛氣弱則氣短
- 小便不利 - 濕邪內蓄 氣化失調
- 惡風不欲去衣 - 表陽虛弱
- 身微腫 - 風濕之邪 透于肌膚

2) 病機 : 風濕相搏 經絡失調

3) 方解 : 甘草附子湯 - 溫經止痛 散風除濕

본방은 순전히 辛甘化陽, 大熱之劑로 表裏內外의 陽을 助長하여 肌肉, 腠理, 骨節의 風濕이 表를 따라 升散하게 하고, 裏를 따라 溫和하게 하니 風濕病에 熱象이 없을 때 首方이 된다고 하였다. 즉, 甘草와 桂枝는 散風強心하게 하고, 附子는 溫經止痛하고, 白朮은 健脾除濕하게 한다. 본방은 甘草로서 主藥으로 삼는데 이는 筋骨의 邪氣를 緩以治之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¹²⁾

그리고, 表證만 있고 裏證이 없는 桂枝附子湯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甘草附子湯은 汗出身腫의 表證과 短氣, 小便不利의 裏證이 있다고 하였고, 表의 風濕相搏이 주가 되므로 桂枝를 重用하였으며, 生薑과 大棗를 뺀 것은 短氣에 辛散濕泥한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⁷⁾ 服藥法에서 “汗出復煩者 服五合”이라고 한 것은 이미 汗法을 거쳐 多服하였을 경우 過汗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⁹⁾

(4) 桂枝附子湯, (5) 去桂加白朮湯

- 1) 病程 : 傷寒八九日 - 日久不愈 病必生變
- 2) 證狀 : 身體疼煩 - 風邪偏盛于表
不能自轉側 - 濕邪阻滯經絡
不嘔不渴 - 邪未入少陽陽明
脈浮虛而澀 - 陽虛風盛濕滯
若大便硬 - 津液不遂腸導
小便自利 - 小便偏滲膀胱

3) 病機 : 傷寒兼風濕 其邪在表

4) 方解 : 桂枝附子湯 - 桂枝湯去芍藥加附子, 祛風溫陽除濕.

本方은 風濕이 外襲하고 衛陽이 不振하여 桂枝湯에 酸寒한 芍藥을 去하므로 邪氣가 留滯하게 하는 것을 防止하고, 附子의 辛溫을 加하여 陽氣를 진작하게 하고 陰邪를 對敵하게 한다.²⁰⁾

去桂加白朮湯 - 本證은 風邪가 이미 緩解 되었으므로 祛風通陽하는 桂枝를 去하였다. 그리고, 濕邪가 偏重되었으므로 白朮을 가하여 健脾除濕하게 하였다.¹²⁾ <傷寒貫珠集>에서는 “表의 陽氣가 비록 약하나 裏의 氣는 스스로 조절되므로 皮中의 濕은 당연히 裏에서 拘縮하여 水道를 따르게 함으로써 배출하게 하고 다시 表를 따라 나가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약해진 陽을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白朮과 附子는 皮中으로 함께 달리므로써 水氣를 몰아낸다.”²⁰⁾ 고 하였다.

5) 加減

① 大便硬 小便自利 去桂 : 桂枝는 上焦를 조절하고 大便硬 小便自利의 證狀은 中焦가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大便不硬 小便不利 當加桂 : 대개 小便은 上焦의 氣化 이후에 방광에 저장된 小便이 능출하게 되는데, 湯藥을 이미 복용하여 濕氣가 胃로 들어가므로 大便不硬 小便不利는 上焦가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⁷⁾

(6) 麻黃附子細辛湯

1) 證狀 : 反發熱 - 太陽病表證

脈沈者 - 少陰病裏脈 則兩感太陽少陰

2) 病機 : 寒邪外束 陽氣內虛(太陽少陰同病)

3) 方解 : 麻黃附子細辛湯 - 溫經解表

麻黃은 太陽의 表寒을 발산하게 하고, 附子는 少陰의 裏寒을 溫하게 하며, 細辛은 溫裏할 뿐만 아니라 表에 까지 도달하게 한다.

4) 應用

① 暴瞶, 暴盲 - 과로후 찬물에 다리를 씻고 遺精을 동반한 후에 寒邪侵襲 足少陰腎經으로 진단하고 蟬退, 菟絲子, 枸杞, 熟地를 가미하여 3劑를 連服 후 全癒하였다.²¹⁾

② 완고한 寒熱 - 43例의 환자에서 임상검사상 이상이 없고 양약으로 치료가 안된 경우로 병력은 최소 1년에서 2년, 발열시간은 오후 7시 전후가 대부분으로 발열은 38.7~40℃사이로 발작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麻黃附子細辛湯에 炙甘草를 가하여 최단 8일에서 最長 24일에 有效한 치료효과를 거두었다.²²⁾

③ 嗜睡 : 16세, 여, 정신부진, 畏寒肢冷 2년, 腎陽不足, 濕濁中阻로 진단하고 麻黃附子細辛湯에 蒼朮, 厚朴, 陳皮, 甘草를 가미하여 6劑를 連服 후 全癒하였다.³²⁾

④ 心悸 : 5년 전부터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로 심전도 검사상 심근허혈을 나타내고 최근 感冒, 嗜臥를 동반한 남자환자에게 麻黃附子細辛湯에 黨蔘, 炙甘草를 가하여 3劑를 連服한 이후에 諸症이 소실하였다.²³⁾

⑤ 피부소양증 : 매년 겨울에 발작하는 5년된 피부소양증에 麻黃, 附子, 細辛 각 6g을 活用하여 3劑를 連服한 후에 全癒하였다.²⁴⁾

(7) 麻黃附子甘草湯

1) 病程 : 得之二三日 - 腎陽素虛 感受外寒 二三日表寒未陷入少陰地經 乃在太陽之表 其病勢較爲輕淺

2) 證狀 : 脈沈或沈細 - 少陰裏虛

惡寒發熱 - 無汗太陽表實

3) 目的 : 未發汗 - 病輕邪淺 未散表寒

4) 辨證 : 以二三日無裏證 - 因二三日 不現吐利厥冷 等證

故微發汗 - 有表無裏 未發其汗則愈

5) 病機 : 寒邪外束 陽氣內虛(太陽少陰同病)

6) 方解 : 麻黃附子甘草湯 - 少陰發表之輕劑

본방은 麻黃附子細辛湯에서 細辛의 辛散을 甘草의 和中으로 바꾸어 過度한 發散을 制約하여 微汗을 취하게 하므로 少陰發表의 輕劑를 이루게 한다.¹⁷⁾

<傷寒來蘇集>¹⁷⁾에서는 麻黃附子細辛湯과 麻黃附子甘草湯을 太陽病의 麻黃湯과 桂枝湯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太陽은 陽中の 陽으로 表를 주하고 汗은 쉽게 발하고 그 邪氣는 쉽게 흩어진다. 따라서, 처음에 麻黃-甘草를 活用하고 桂枝를 助하고 다음에 桂枝-生薑을 活用하고 芍藥으로써 反佐한다. 少陰은 陰中之陰으로 發汗하기가 가장 쉽지 않고 그 邪氣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麻黃-附子를 活用하고 細辛으로써 보조하고, 다음에 麻黃-附子를 活用하고 甘草로써 완화하게 한다.”고 하여 太陽과 少陰에서 發汗劑의 輕重緩急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醫門棒喝>²⁵⁾에서는 煎湯法에서도 少陰病 發汗法의 輕重緩急을 설명하였는데, 麻黃附子細辛湯에서 “先煮麻黃一二沸 去上沫”한 것은 發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麻黃附子甘草湯에서 “先煮麻黃減水二升”한 것은 麻黃의 輕揚한 성질을 누그러뜨려 徐緩하게 함과 동시에 諸藥과 和合同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8) 附子瀉心湯

1) 證狀 : 心下痞 - 熱邪聚于心下 痞滿不舒
復惡寒汗出者 - 表陽虛弱 衛外不固
惡寒輕微 汗出不多

2) 病機 : 表陽虛衰 胃中溫熱

3) 方解 : 附子瀉心湯 - 瀉痞熱 固表陽

본방은 구성에서 볼 때 寒에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순전히 扶陽을 하면 다시 燥熱하게 되고, 순전히 清熱을 하게 되면 陽氣는 더욱 虛하게 된다. 하지만, 苦寒한 大黃, 黃連, 黃芩은 煎湯法에서 끓는 물에 잠깐 담궈다가 꺼내어 그 氣味의 輕薄한 것을 취하여 胃部心下(上部)의 邪熱을 清하게 하고 消痞의 목적을 이룬다. 辛溫大熱한 附子는 따로 끓여 藥力의 厚함을 취하여 溫經扶陽 함으로서 固表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는 寒溫과 攻補가 併用되었으나 瀉痞의 의미는 輕하고 扶陽의 의미가 중하게 된다.¹⁵⁾

(9) 回逆湯, (10) 回逆加人蔘湯

1) 證狀 : 主證 - 脈微細 沈弱或沈遲 但欲寐 精神萎靡 四肢厥冷 下利清穀 嘔吐 無熱惡寒 或大汗出 或身有微熱 熱不去 小便清白 舌質淡 苔白滑
副證 - 腹中拘急 四肢拘急 四肢疼痛 口不渴 或渴喜熱飲 脈浮遲

無熱而惡寒 : 陽亡則不能溫照

或表熱 : 陰寒內盛 虛陽外越 則陰盛格陽

大汗出 : 衛陽之外固性不足 但欲寐, 精神萎靡, 脈微細, 沈弱或沈遲; 心腎陽氣衰微 陰寒內盛 神失所養所致

口嘔, 不渴, 渴喜熱飲 : 下焦陽氣虛弱 陰寒上逆

下利清穀, 腹中拘急 : 脾陽不足以升騰津液 溫化水穀

四肢拘急, 疼痛 : 利多陰脫則失于濡養

小便清白, 四肢厥逆 : 腎爲陽氣之根 不足以溫化水液 不能發散于外而溫照四末

2) 病機 : 陽亡欲脫 陰寒彌漫

3) 方解 : 四逆湯은 回陽救逆의 主方으로, 附子는 溫腎回陽 破陰寒함으로써 少陰虛寒證을 치료하는 主약이 된다. 乾薑은 辛溫守中하므로써 附子의 回陽破陰을 돕는다. 甘草의 甘溫은 溫養陽氣 補虛

調中하므로써 藜附의 溫陽作用을 도와 回陽救逆의 효능을 다하게 한다. 본방에서의 특징은 附子를 活用함에 있어 生用한 것이다. 생용함은 그 힘의 峻猛하고 속효함을 취한 것으로 久煎하여 그 독성을 저하시킨다.^{15,19)}

四逆加人參湯은 四逆湯의 回陽救逆에 人參의 益氣固脫이 가하여져서 陰血을 生化하게 하는 處方이 된다. 張路玉은 “亡血에 乾薑과 附子로 損陰함은 마땅치 않고, 陽虛에 當歸와 芍藥으로 助陰하는 것 역시 마땅하지 않으나 利後에 惡寒不止하고 陽氣下脫이 이미 심하니 四逆湯으로서 復陽하는 것이 급하고 人參을 가하여 津液을 보호하고 陽藥과 더불어 더욱 약력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¹⁵⁾

(11) 通脈回逆湯, (12) 通脈回逆加猪膽汁湯

1) 證狀 :

下利清穀 - 脾胃陽衰 陰寒彌滿 運化失職
手足厥逆 - 裏寒太盛 陽氣虛衰 不能外達
脈微欲絕 - 陽衰至極
身反不惡寒 - 裏寒過盛 格陽于外 身微熱 不惡寒
其人面赤色 - 格陽于上 面赤如粉 載陽證現
或腹痛 - 寒盛于裏 滯而不散
或乾嘔 - 寒邪犯胃 氣向上逆
或咽痛 - 虛陽浮越 循經上干
或利止 - 陰液內竭 無物可瀉
脈不出 - 寒阻經脈 氣血不繼
吐已下斷 - 陽亡津竭 吐下無物
汗出而厥 - 陽氣外脫 陽衰不達
四肢拘急不解 - 陰液內竭 筋脈失養
脈微欲絕 - 氣血兩虧 脈搏無力

2) 病機 : 陰寒內盛 虛陽外越

3) 方解 : 본방은 四逆湯과 藥味が 같지만 乾薑(一兩半 : 三兩)과 附子(一枚 : 大者一枚)의 用量이 보다 많고, 서로의 證狀를 비교해 볼 때 通脈回逆湯이 보다 兪중하다고 할 수 있다. 四逆湯

處方 후의 “強人可大附子一枚 乾薑三兩”이 있으므로 一方兩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破陰回陽의 효능을 증강시켜 裏의 陰寒을 속히 破하게 하고 陰陽格拒의 氣勢를 除去하여 허탈하려는 元陽을 회복하게 한다.¹⁵⁾ 猪膽汁은 苦鹹益陰하여 從陰引陽하는 효능이 있고, 乾薑과 附子가 躁動浮揚하는 폐단을 없앤다.¹⁶⁾

(13) 茯苓回逆湯

1) 病程 : 發汗若下之 - 誤汗下後 陰陽兩傷하여 少陰으로 轉變

2) 證狀 : 煩燥 - 心腎兩傷 水火不制

3) 病機 : 陽亡陰竭 寒盛水停

4) 方解 : 본방은 回陽益陰 兼伐水邪의 방으로 구성중 四逆湯은 回陽救急하고 人參과 茯苓은 益氣生津止煩하여 汗下후 陰陽兩虛의 煩燥症을 안정하게 한다. 乾薑과 附子로 破陰回陽하게 한다. 한편, 人參은 回陽중 益陰, 益陰중 助陽의 효능을 가진다. 茯苓은 乾薑과 附子를 도와 通陽利水하며 少陰陰穢를 除去하는 작용을 하며, 人參과 협조하여 元기를 도와 정신을 안정하게 한다. <醫宗金鑑>¹⁹⁾에서는 이를 설명하기를 “茯苓은 太和의 氣化가 있어 水邪를 치되 陽氣를 傷하지 않으므로 畧이 된다.”고 하였다. 甘草는 補中, 調和諸藥의 작용을 한다.

(14) 白通湯, (15) 白通加猪膽汁湯

1) 證狀 :

不利 - 脾胃兩虛 眞火衰微 陰寒內盛
脈微 - 心腎陽氣 衰微不振
利不止 - 裏寒特盛 陽氣虛極 不能固攝
厥逆 - 陽衰 不能外達于四末, 心弱 無力運血于肢端
無脈 - 陰陽失調 上下不接
乾嘔 - 陰寒極盛 犯胃上逆
煩者 - 虛陽無依 上搖神明
脈暴出者死 - 無根之陽 發露無遺

脈微續者 生 - 被鬱之陽 漸次恢復

2) 病機 : 陽亡陰勝 虛陽上越(則載陽證)

3) 方解 : 위의 두 處方에서 葱白은 辛而通者로 入脈하여 引陽하고, 乾薑과 附子는 辛而溫者로 破陰固表하며, 人尿와 猪膽汁은 鹹寒苦寒으로 從陰引陽한다.²⁰⁾ 人尿와 猪膽汁을 <醫門棒喝>²⁵⁾에서는 “人尿의 鹹味는 猪膽汁의 苦味를 勝하고 猪膽의 苦는 薑蔥附의 辛味를 勝하니 辛이 鹹苦의 制約을 받아 鹹苦한 味가 능히 少陰으로 이끌어 하행하여 寒性を 소실하게 하고 熱性を 발하게 하여 그 功을 이룬다.”고 하였다. <醫宗金鑑>¹⁹⁾에서 人尿와 猪膽汁을 설명하면서 “본방에서 陰寒이 盛한데 전적으로 熱藥으로써 寒을 치료하지 않은 것은 寒氣가 이미 심하여 반드시 格拒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人尿와 猪膽汁으로써 陽藥을 끌어 陰으로 들어가게 한다. 經에서 말한 ‘逆者從之’는 이를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방이 四逆湯과 相類인데 홀로 甘草만을 去하였는데 이는 寒陰을 구축하는데 신속히 하고, 辛熱함이 속히 發하게 하여 下焦로 直送하게 하는데 甘草의 ‘甘以緩之’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王珍三은 “葱白은 上焦의 陽을 통하게 하여 아래로 腎에 交通하게 하고, 附子는 下焦의 陽을 인도하여 心에 이어지게 하고, 乾薑은 中土의 陽을 온하게 하므로써 上下를 통하게 하니 上下水火가 交濟하여 下利가 멈추게 된다.”고 하였다.²⁵⁾

(16) 乾薑附子湯

1) 證狀 :

下之後 復發汗 - 表裏之陽氣大傷
晝日煩躁不得眠 - 虛陽得天陽之助 能如陰爭
夜而安靜 - 陽氣衰極 無力與陰邪相爭
不嘔不渴無表證 - 無三陽證
脈沈微 - 裏陽虛衰
身無大熱者 - 表無大熱

2) 病機 : 陽虛陰盛 虛陽浮越

3) 方解 : 본방은 辛溫大熱한 乾薑과 附子만을

配伍하여 回陽救急한다. 陶節庵이 말하길 “溫經用 附子無乾薑不熱”이라고 하였다.²⁷⁾ 본방을 四逆湯을 중심으로 茯苓四逆湯과 비교해 보면, 본방은 四逆湯에 甘草를 去하였는데 이는 勢力을 더욱 峻猛하게 하여 四逆湯에 비해 峻劑가 되고 回陽에는 마땅히 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茯苓四逆湯에 甘草의 甘味로써 調和하게 하고 四逆湯에 비하여 緩劑가 되고 固裏에는 마땅히 緩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⁷⁾ 服藥法에서 한번에 복용(頓服)을 하게 되는데 이는 藥力이 集中됨을 취하여 효과를 迅速하게 취하기 위함이다.¹⁵⁾

(17) 附子湯

1) 病程 : 得之一二日 - 腎陽虛衰 邪從寒化

2) 證狀 : 口中和 - 裏無熱邪 不燥不渴

其背惡寒者 - 督脈陽虛

當灸之 - 溫陽散寒 以助元陽

身體痛 - 陽虛寒滯 營血不足

手足寒 - 陽虛不能 溫照四肢

骨節痛 - 陽虛寒濕 凝滯關節

脈沈者 - 寒濕在裏 陽氣不振

3) 病機 : 陽虛外寒 經脈凝滯

4) 方解 : 본방은 溫經散寒 益氣健脾의 處方으로 炮附子는 溫經散寒鎮痛하고 人蔘과 더불어壯元陽하고 白朮과 茯苓은 健脾燥濕하고 附子の 辛熱을 얻어 散寒除濕의 功이 더욱 현저하게 한다. 芍藥은 益陰和陽하고 和榮血하여 芍藥과 附子와 配伍하니 剛柔가 相濟하여 溫하나 燥하지 않으며 血痺를 통하게 하여 止痛하게 한다.¹⁵⁾ 柯琴은 “本방은 扶陽하되 益陰하지 않으면 陰虛하여 陽이 깃들 곳이 없게 되고, 따라서 扶陽함으로써 驅寒하고 益陰함으로써 固本하니 少陰固本御邪의 방제다.”고 하였다.¹⁷⁾

(18) 芍藥甘草附子湯

1) 證狀 :

發汗 - 陽遂汗泄 陰液逆上

病不解 - 非表證不解 乃轉虛之證未愈

反惡寒 - 陽虛生外寒

虛故也 - 發汗過多 轉爲陰陽虛之證

2) 病機 : 發汗過多 陰陽久虛

3) 方解 : 본방은 扶陽益陰의 處方으로 芍藥甘草湯에 芍藥과 甘草의 用量을 一兩씩 줄인데 附子가 加해진 것이다. 芍藥의 酸으로 益血하고 附子の 辛으로 復氣한다. 甘草의 甘平은 安中補虛하며 酸味와 合하여 化陰하고 辛味와 더불어 合하여 生陽한다고 하였다.²⁰⁾

(19) 眞武湯

1) 原因 : 太陽病發汗 - 汗不如法 是爲誤汗

2) 病程 : 二三日不已 - 病不全癒 必有轉變
至四五日 - 邪入于裏 病勢發展

3) 證狀 :

汗出不解 - 非表未解 是病未愈

其人仍發 - 過汗亡陽 虛陽外浮

心下悸 - 脾腎陽虛 水氣凌心

頭眩 - 清陽不升 濁陰不降

身瞶動 - 陽虛陰弱 筋脈失養

振振欲擗地 - 陽虛身顛 不能自止

腹痛 - 陽虛陰盛 水邪不散

小便不利 - 腎虛水停 膀胱氣化不行

四肢沈重疼痛 - 寒濕外侵 溫陽失職

自下利 - 寒水下搏 諸水無權

或咳 - 寒水之氣 上逆犯肺

或小便利 - 陽虛不運 水濕偏滲膀胱

或嘔 - 水停中宮 胃寒氣逆

4) 病機 : 陽虛陰盛 水氣內停

5) 方解 : 본방은 溫陽化氣行水의 處方으로 附子の 辛熱은 溫腎長養하여 腎陽이 회복되게 하니 水가 主하는 바가 있게 된다. 白朮은 健脾燥濕하여 脾土가 건립되니 水가 制約되는 바가 있게 된다. 生薑은 宣散水氣하며 附子の 助陽을 보좌하니 主水증 散水의 의미이다. 茯苓은 滲淡利水하며 白朮의 健脾를 보좌하니 制水증 利水의 쓰임이다. 芍藥의 斂陰和營은 附子の 剛燥한 성질을 制約하

여 溫陽利水劑중 陰液을 보호하는 작용에 이르게 하여 과도한 利水로 인한 傷陰을 면하게 한다.¹⁵⁾

6) 加減

① 若咳者 : 水寒射肺故 加乾薑細辛 溫肺散寒 和陰 加五味子 斂肺止咳

② 若小便利 : 不需利水 去茯苓

③ 若下利 : 水寒下趨大腸 去芍藥之苦泄 加乾薑以溫裏

④ 若嘔者 : 水寒犯胃 故加重生薑用量 和胃散水 降逆止嘔¹⁵⁾

去附子 其病非下焦 水停於胃 不須溫腎以行水 只當溫胃以散水¹⁹⁾

7) 應用

① 血栓閉塞性脈管炎(脫疽) : “黑·冷·疼·硬·腫·爛”을 특징으로 할 때 사용하였다. 壞死潰爛을 同伴하며 진물이 흐르고 膿은 없는 證狀을 腎陽虧虛, 寒濕阻滯經絡으로 보고 本方에 乾薑, 甘草, 桂枝 黨蔘, 黃芪를 加하여 6例中 1例를 除外하고는 黑, 冷, 痛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趺陽脈 역시 正常으로 回復되었고, 壞死潰爛도 愈合되었다.²⁸⁾

② 陰囊腫大(狐疝), 水臌(腹水) : 血栓閉塞性脈管炎에 腰背惡寒, 足膝怕冷, 便溏尿短, 面白消瘦, 舌苔滑, 脈沈遲를 兼한 證狀에도 역시 有效하였다.¹⁶⁾

③ 水腫, 眩暈, 高血壓, 류머티스성 심장병, 徐脈 : 이를 陽虛水邪犯溢을 辨證要點으로 삼고 眞武湯에 加감하여 치료하였다.²⁹⁾

④ 腎虛泄瀉 : 위, 십이지장, 결장, 소장의 방사선 조영검사상 정상으로 5년 동안 하루 3~4차 설사하는 환자를 眞武湯을 加감하여 10餘劑를 連服 한 후에 完化되었다.³⁰⁾

⑤ 心衰 : 울혈성 심부전 22예, 류머티스성 심장병 3예, 관상동맥질환 3예, 고혈압성 심장병, 심근병 1예, 고혈압과 병발한 관상동맥질환 1

예, 관상동맥질환과 병발한 류머티스성 심질환 1예에서 病程이 6년에서 15일 정도인 환자에서 五加皮, 丹蔘, 益母草를 가하여 2주 이내의 유효율이 90%에 이른다.³¹⁾

(20) 烏梅丸

1) 證狀 :

蚘厥者 其人當吐蚘 - 蛔搖肢厥 應現吐蛔
 今病者靜 - 蛔不搖動 病人安靜
 復時煩者 此爲藏寒 - 蛔搖動 則心煩 腸虛寒 蛔不能安
 蚘上入膈 故煩 - 蛔搖于格 故覺心煩
 須臾復止 - 蛔不上搖 心煩亦之
 得食而嘔又煩 - 胃寒不納 蛔搖又煩
 蚘聞食臭出 - 食味下嚥 蛔即上迎
 其人常自吐蚘 - 胃氣逆 蛔上竄 食蛔俱吐
 又主久利 - 久痢不愈 有寒熱者 此方可治

2) 病機 : 上熱下寒 蛔蟲上搖

3) 方解 : 본방은 淸上溫下, 安蛔止痛의 處方으로 烏梅는 아울러 식초에 담귀 酸味를 증강하여 安蛔止痛의 주약이 된다. 細辛, 乾薑, 附子, 蜀椒, 桂枝의 辛味를 취하여 復蛔하게 하고 溫性으로써 下寒을 去한다. 黃連과 黃柏의 苦寒을 취하여 苦味으로써 下回하게 하고 寒氣로써 上熱을 淸하게 한다. 人蔘과 當歸를 活用하여 益氣養血하게 하고, 또 人蔘은 蛔動하여 中虛하므로 安中止痛하게 한다. 본방은 古云 “蛔得甘則動 得苦則安 聞酸則靜 得辛熱則止”과 부합한다.^{15,20)}

3. 附子 活用方の 주요 약물配伍

<傷寒論>에서 附子는 다른 20가지 약물과 配伍되어 活用되었다. 이들중에서 대표적인 配伍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附子-乾薑

이 약물 配伍는 祛寒類 중에서 臟腑를 溫하게

하는 配伍이다. 附子는 辛甘大熱하며 雄壯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走而不守하고 斬關奪將의 氣를 가지므로 十二經을 통하게 하는 純陽의 要藥으로 回陽補火, 散寒除濕의 효능을 갖추고 있다. 乾薑은 辛大熱한 純陽의 味를 가지며 守而不走하여 溫中, 回陽通脈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두약이 配伍된 즉, 回陽救逆과 溫中散寒의 작용이 증가된다. 陶節庵은 “溫經用附子無乾薑不熱”고 하였다. 이 약물 配伍는 虛寒陰水, 寒濕痺證의 치료에도 活用되고 있으며 利水除濕과 祛風除濕藥과 함께 活用할 때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한다.²⁷⁾ 附子를 活用了한 20방 중에서 이 配伍가 活用된 處方이 8방으로 數적인 면에서도 이 配伍가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乾薑 附子湯, 茯苓四逆湯, 四逆湯, 四逆加人蔘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에서 活用되었다.

(2) 附子-白朮

이 약물 配伍 역시 祛寒類 중에서 臟腑를 溫하게 하는 配伍이다. 附子和 白朮이 配伍된 것을 朮附湯이라고 하고 이는 임상적으로 溫腎健脾에 사용된다. 附子の 辛熱하고 散寒하는 힘이 비교적 강하여 回陽救逆에 능할 뿐만 아니라 溫腎暖脾와 散寒除濕에도 능하다. 白朮은 苦溫除濕, 甘溫益脾한다. 脾가 運化를 담당하고 喜燥惡濕하니 陽을 얻은 즉 運化가 시작된다. 만약 腎陽이 부족하면 脾土 역시 寒하게 되고 寒이 內에서 생하여 반드시 裏濕이 不和함에 이르러 水濕이 머무르게 되고 中焦胃脘에 정체된 즉 納食不化, 脘腹冷痛이 있으며 腸間에 머무른 즉 便瀉泄瀉하게 되고, 피부에 넘친 즉 全身水腫, 小便不利하게 되고, 心胸에 逆入한 즉 心悸怔忡이 있게 된다. 이 두 약물의 配伍는 附子の 益火之原, 補火生土의 작용과 白朮의 溫脾燥濕, 運氣土臟을 活用하여 溫陽散寒의 힘을 증강시켜 脾腎兼治의 작용을 하게 한다. 이 두 약물의 配伍는 風寒濕邪가 經絡과 關節, 肢體關節疼痛을 일으키는 痺證에 비교적 活用되는 약물로 散寒, 祛濕, 止痛의 작용이 있다.²⁷⁾ <傷寒論>에서는

附子湯과 眞武湯에서 活用되었다.

(3) 附子-桂枝

이 약물 配伍는 祛寒類 중에서 經絡을 온하게 하는 配伍이다. 桂枝는 輕揚升散하며 味辛氣溫하여 經絡으로 달려 血脈을 통하게 하고 散寒하는 功이 있다. 附子는 辛溫大熱하며 能散陰寒, 通關節, 搜風除濕의 功이 있다. 이 두 약물이 配伍된 즉 溫經通脈, 散寒止痛의 작용이 증강되어 寒濕痛痺로 인한 不能轉側, 骨節煩疼諸痛, 關節不得屈伸 등의 證狀을 치료하는데 活用된다. 이 약물 配伍는 溫經通脈의 기본 약물 配伍가 된다. 대개 陽虛寒凝으로 인한 다양한 病證에 活用되는데 溫經止痛, 助陽解表의 작용이 있고, 強心解肌의 작용이 있어 心衰한데 風寒感冒에도 活用되며, 陽虛에 氣化不利한 水腫病證에 利水滲濕藥과 配伍하여 通陽化氣함으로써 利水작용을 증가하게 한다.²⁷⁾ <傷寒論>에서는 桂枝加附子湯,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附子湯에 活用되었다.

(4) 附子-細辛

이 약물 配伍는 祛寒類 중에서 經絡을 온하게 하는 配伍이다. 임상에 있어 散寒止痛에 상용된다. <本草正義>에서 말하길 “細辛은 芳香이 가장 강렬하여 結氣와 鬱滯를 開宣하는데 능하여 능히 위로는 顛頂에까지 달하여 耳目을 通利하고 百骸에까지 旁達하니 아주 미미한 곳이라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안으로는 宣絡脈하고 疏通百節하며 밖으로는 孔竅로 행하고 肌膚로 直透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附子에 대해서 말하길 “辛溫大熱하고 그 성질은 善走하니 十二經을 통행하는 純陽의 要藥이 된다. 밖으로는 皮毛에 도달하여 表寒을 除하고 안으로는 下元에 도달하여 癩冷을 溫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配伍는 表裏內외의 寒을 모두 치료한다.²⁷⁾ <傷寒論>에서는 麻黃附子細辛湯과 烏梅丸에서 쓰였다.

(5) 附子-麻黃

이 약물 配伍는 解表類 중에서 祛風散寒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이 配伍는 평소에 陽虛한데 다시 風寒에 傷했을 때 活用된다. 附子는 麻黃의 散寒解表로 祛邪하는 중에 裏陽을 보호함으로써 扶正하게 하니 이 配伍는 一攻一補로서 助陽解表의 功이 있게 된다. 汗出하게 하는 중에 補가 있으니 汗出을 하되 正氣를 傷하지 않게 하고 補하는 중에 邪氣를 祛하게 하는 것을 도우니 扶正하되 邪氣가 阻滯되지 않게 한다.²⁷⁾ <傷寒論> 중에서 麻黃附子細辛湯과 麻黃附子甘草湯에 活用되었다.

(6) 附子-茯苓

이 약물 配伍는 祛濕類 중에서 利水除濕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이 配伍의 치료 작용은 대체로 2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溫腎利水하여 陰水證에 活用된다. 茯苓이 附子를 만난 즉 補火生土하여 水가 歸하는 바가 있게 하고, 附子が 茯苓을 만난 즉 坎陽이 고동되어 水가 收攝하는 바가 있게 한다. 따라서, 脾腎陽虛하여 水氣가 內停하여 나타나는 諸證에 活用된다. <傷寒論>에서는 眞武湯, 濟生方에서는 實脾散에 이 약물 配伍를 活用하여 溫腎健脾利水の 작용을 이루게 한다. 둘째는 溫陽散寒, 除濕止痛하여 陽虛寒濕身痛證에 活用된다. <傷寒論> 중에서는 附子湯이 해당되며 이때 附子の 用量은 비교적 많은데 炮附子를 活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²⁷⁾

(7) 附子-大黃

이 약물 配伍는 瀉下類 중에서 溫下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임상에 있어 상용되는 配伍로 <金匱要略>의 大黃附子湯, <千金方>의 溫脾湯의 重要 구성 성분이다. 이 약물이 相合한 즉 苦辛通降하고 寒實을 攻下한다. 따라서, 寒實積滯로 인한 便秘와 腹痛 등 중에 있어 溫藥이 아니면 그 寒을 祛할 수 없고, 下가 아니면 그 實을 除去할 수 없다.²⁷⁾ <傷寒論>에서는 附子瀉心湯에서 이 配伍가 活用되었으나 잠깐 동안 끓는 물에 담궈 氣味の

清薄함을 취하여 瀉痞에 중심을 두어¹⁵⁾ 이 配伍와는 차이가 있다.

(8) 附子-黃連

이 약물 配伍는 調和類 중에서 調和腸胃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이 配伍는 水火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나 寒熱이 병용되어 陰陽相濟의 뜻이 있다. 附子は 扶陽으로 虛寒을 치료하고, 黃連은 瀉心으로 實熱을泄하게 하니 扶陽泄熱의 효능을 갖추고 있다. 黃連과 附子의 配伍는 즉시 水火交通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虛實과 寒熱이 挾雜한 熱結心下, 脘腹痞悶作痛, 泄瀉不暢, 嘔惡心煩, 陽虛不固, 汗多惡寒, 肢冷脈弱 등 증에 상용된다. <醫學正傳>의 連附六一湯은 이 配伍를活用하여 胃脘痛을 치료하였다.²⁷⁾ <傷寒論>에서는 附子瀉心湯에서活用되었다.

(9) 附子-人蔘

이 약물 配伍는 補益類 중에서 補氣補陽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이 配伍는 辛甘이 助陽하여 위로는 心陽을 돕고 아래로는 命門을 보하고 중으로는 脾土를 補益하는 효능이 있다. 따라서, 正氣大虧하고 陽氣가 폭탈하여 일어나는 諸證狀을 치료할 때 주로 配伍된다. 生附子와 人蔘이 配伍될 때는 力雄峻猛하여 危急證에 대응되고 熟附子는 生附子에 비하여 力弱勢緩하나 久虛한 證狀에 대응된다.²⁷⁾ <傷寒論>에서는 茯苓四逆湯, 附子湯, 烏梅丸에서活用되었다.

(10) 附子-芍藥

이 약물 配伍는 補益類 중에서 氣血陰陽兼補에 해당하는 配伍이다. 이 配伍 중에서 附子는 溫散寒凝하며 芍藥은 養血和營하여 血中の 寒凝을 홀고 緩急止痛하게 한다. 白芍의 酸味는 陰氣를 수렴하여 아울러 附子의 辛散燥熱을 緩和하게 하여 溫陽散寒하되 陰血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 약물이 配伍한 則 一陰一陽, 一寒一熱, 一收一散, 剛中有柔, 動中有靜의 陰陽調和가 있다. <傷寒論>에서

는 附子湯과 眞武湯에서活用되었다.²⁷⁾

4. 附子와 合用약물 분류³²⁾

<傷寒論>에서 附子를 운용한 20방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附子와 解表合用

1)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加附子湯 - 太陽病 誤下 혹은 過汗으로 인한 衛陽虛損者에活用하였다. 이는 병이 太陽에 주로 있으므로 解表調和營衛로서 위주로 삼고, 附子를 配伍하여 溫經復陽함으로써 邪祛陽旺하게 한 즉 諸證이 치유되게 하였다.

2)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 附子가 發汗解表하는 麻黃과 細辛등과 配伍하여 少陰病에 表證을 겸한 證狀에活用되어 發散藥을 끌어 開腠理하고 扶陽중 發汗解表하게 하고 解表중 陽을 상하지 않게 한다.

(2) 附子와 除濕合用

桂枝附子湯, 去桂加白朮湯, 甘草附子湯, 附子湯 등이 이에 속한다. 附子의 辛燥로써 祛風濕하고 溫經으로써 復陽하여 散寒濕하고 止痛하게 하고 또한 白朮과 茯苓 등의 健脾燥濕과 配伍하여 溫陽散寒, 除濕止痛의 효능을 다하게 된다.

(3) 附子와 泄熱合用

附子瀉心湯이 이에 속하며 熱痞하며 表陽虛에活用되었다. 이 證狀에 순전히 扶陽만을活用한 즉 그 熱을 조장하게 되고 순전히 清熱만 한 즉 陽氣가 더욱 衰하게 되니 寒溫併用, 攻補兼施의 방법을 취한 것이다. 大黃, 黃連, 黃芩으로써 상부의 邪熱을 清하게 하고 消痞하게 한다. 附子는 따로 끓여 汁을 취하여 辛熱한 약으로 하여금 厚味를 얻어 溫經扶陽하고 고 固表하는 작용이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따라서, 이 四味가 서로 합하여 漚

熱消痞, 扶陽固表的 효능을 다하게 된다.

(4) 附子와 化氣行水合用

眞武湯이 이에 속한다. 이는 太陽病 過汗으로 陽虛水犯 혹은 少陰陽虛水停證에 活用되며 溫陽利水 중에 陰液을 보호하여 過利로 인한 傷陰을 면하게 한다. “腎爲本, 脾胃制水之臟”이라는 원리에 부합한다.

(5) 附子와 溫中散寒合用

이는 <傷寒論>에서 附子를 운용한 내용의 중요점이다. 乾薑附子湯, 茯苓四逆湯, 四逆湯, 四逆加入參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이 이에 속한다. 모두 生附子와 乾薑을 같이 心腎陽氣大虛하고 陰寒內盛한 亡陽危重證에 活用하였다. 生附子로서 위로 心陽을 도와 通脈하게 하고 아래로 腎陽을 보함으로써 回陽救逆한다. 또, 반드시 乾薑의 溫中回陽과 配伍하여 回陽救逆의 효능을 증강시키므로 “附子無薑不熱”의 說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傷寒論>에서 附子 운용의 특징을 말한다면, <本草正義>에서 “附子は 본래 辛溫大熱하고 잘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十二經의 純陽을 운행시키는 중요한 약으로서 밖으로는 皮毛에 이르러 表寒을 除去하고 안으로는 下元에 까지 이르러 찬 것을 덥혀준다. 附子は 内外를 통하기에 대개 三焦, 經絡이나 모든 臟腑에 眞寒이 있을 때 치료 못하는 것이 없다.”⁶⁾와 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6) 附子와 益陰合用

發汗過多로 인한 陰陽久虛에 活用하는 芍藥甘草附子湯이 이에 속한다. 芍藥과 甘草의 酸甘化陰하여 營血을 滋養함으로써 發汗過多로 인한 陰氣의 虛함을 보충하고, 附子의 溫經復陽함으로써 衛氣를 實하게 한다. 이 세가지 약이 배합됨으로서 陰陽雙補의 의미가 있게 된다.¹⁵⁾

(7) 附子와 安蛔止痛合用

上熱下寒, 蛔蟲上搖하는 蛔厥에 活用하는 烏梅丸이 이에 속하며, 清上溫下하며 安蛔止痛하는 主藥이 된다.

5. <傷寒論>에서 附子の 辛三法⁶⁾

- (1) 辛燥而 祛除風濕 : 桂枝附子湯, 桂枝附子去桂加白朮湯, 甘草附子湯
- (2) 辛潤而 溫補水臟 : 附子湯, 芍藥甘草附子湯
- (3) 補復元陽 : 白通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6. <傷寒論>에서 附子の 炮劑, 用量, 煎湯法 및 服用法の 특징³²⁾

(1) 製法

<傷寒論>에서 活用된 附子는 生과 炮劑의 2종류로 製法에 따른 약물 配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生附子 活用時의 특징

- ① 乾薑과 配伍時에 活用되었다.
- ② 除毒의 효능이 있으며 대부분 久煎한다.
- ③ 生者力猛 其證皆急 多爲陽亡欲脫 回陽救逆

2) 炮附子 活用時의 특징

- ① 乾薑과 配伍되지 않을 때 活用되었다.
- ② 炮劑性緩 其證交輕 故用於溫經散寒 風濕水氣 陽虛陰盛等證^{15,16)}

(2) 用量

附子의 用量에 있어서는 1枚에서 3枚 등 같지 않고, 크기에 있어서도 대소의 구별이 있다. 이는 환자의 체질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따라 적당히 운

용되니 이를 “因人因病制意”의 의미라고 한다. 四逆湯 후의 註에 “強人加大附子一枚”가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附子를 去皮하고 8조각으로 나누는데 이는 活用하는 약제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附子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附子의 독성을 감소시켜 活用하는 원리와 같다.

(3) 煎湯法

1) 別煎取汁 - 附子瀉心湯 : 辛熱한 약의 두터움을 얻어 溫經扶陽하며 固表하게 한다.

2) 他藥同煎 - 煎湯시간의 장단은 같지 않다.

(4) 服用法

附子 湯劑의 服用法은 <內經>에서 말한 “寒者熱之”와 같이 溫服한다. 단 拒否가 있는 즉 寒冷한 약물로써 ‘反佐’하게 한다. 白通加猪膽汁湯 등과 같이 熱藥 중에 猪膽汁과 人尿를 가미하여 鹹寒苦降을 취하여 陽藥을 이끌어 陰中으로 들어가 熱藥이 陰寒의 格拒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 回陽破陰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복용횟수에 있어서 頓服, 日二服, 日三服 등으로 다르며, 服用量에서도 五合에서 一升餘로 역시 다르다. 이는 각각의 체질의 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處方구성 약물의 活用빈도

<傷寒論>에서 附子 活用方에 活用된 구성약물의 活用빈도(괄호 안의 숫자)를 보면 甘草(12), 乾薑(9), 桂枝(5), 生薑(5), 芍藥(5), 大棗(4), 白朮(4), 茯苓(3), 人蔘(3), 麻黃(2), 細辛(2), 猪膽汁(2), 葱白(2), 大黃(1), 黃連(1), 黃芩(1), 烏梅(1), 當歸(1), 蜀椒(1), 黃柏(1), 黃精(1)이 活用되었다.

8. 附子 活用方の 분석표(處方 및 配伍 약물의 가감을 중심으로)

(1) 桂枝湯 중심의 附子 活用方

- ① 桂枝加附子湯 : (+)附子
- ② 去桂加白朮湯 : (+)白朮 (-)桂枝
- ③ 桂枝去芍藥加附子湯 : (-)芍藥
- ④ 桂枝附子湯 : (-)芍藥

(2) 乾薑附子湯 중심의 附子 活用方

- ① 白通湯 : (+)葱白
- ② 白通加猪膽汁湯 : (+)葱白, 人尿, 猪膽汁

(3) 四逆湯 중심의 附子 活用方

- ① 四逆加人蔘湯 : (+)人蔘
- ② 通脈四逆湯 : (增量 : 附子, 乾薑)
- ③ 通脈四逆加猪膽汁湯 : (+)猪膽汁
- ④ 茯苓四逆湯 : (+)茯苓, 人蔘

(4) 附子-麻黃 중심의 附子 活用方

- ① 麻黃附子細辛湯 : (+)細辛
- ② 麻黃附子甘草湯 : (+)甘草

(5) 附子-白朮 중심의 附子 活用方

- ① 甘草附子湯 : (+)桂枝, 甘草
- ② 附子湯 : (+)茯苓, 芍藥, 人蔘
- ③ 眞武湯 : (+)茯苓, 芍藥, 生薑

(6) 기타 : 芍藥甘草附子湯, 烏梅丸, 附子瀉心湯

9. 附子가 活用된 處方의 心系領域 치료질환 附子 活用方이 치료할 수 있는 心系領域 질환은 動悸, 浮腫, 眩暈, 昏迷, 痺, 厥冷이 해당된다. (표 1)

處方	분류	厥冷	痺	動悸	浮腫	眩暈	昏迷	病 機
桂枝去芍藥加附子湯								心陽不振 兼營衛不調
桂枝加附子湯		*						誤汗傷陰 表邪未解
甘草附子湯			*		*			風濕相搏 經絡失調
桂枝附子湯			*					傷寒兼風濕 邪在表
去桂加白朮湯			*					風邪已解 濕邪偏重
麻黃附子細辛湯								寒邪外束 陽氣內虛
麻黃附子甘草湯								寒邪外束 陽氣內虛
附子瀉心湯								表陽虛衰 胃中溫熱
附子湯			*					陽虛外寒 經脈凝滯
芍藥甘草附子湯								發汗過多 陰陽俱虛
眞武湯		*		*		*		陽虛陰盛 水氣內停
烏梅丸		*						上熱下寒 蛔蟲上搖
四逆湯		*					*	陽亡欲脫 陰寒彌滿
四逆加人參湯		*					*	陽亡欲脫 陰寒彌滿
通脈四逆湯		*						陰寒內盛 虛陽外越
通脈四逆加豬膽汁湯		*						陰寒內盛 虛陽外越
茯苓四逆湯		*		*				陽亡陰竭 寒盛水停
白通湯		*						陽亡陰勝 虛陽上越
白通加豬膽汁湯		*						陽亡陰勝 虛陽上越
乾薑附子湯								陽虛陰盛 虛陽浮越

10. 附子 活用方の 活用범위, 製法, 用量, 煎湯法과 服用法 <傷寒論>에서 活用된 附子의 活用범위, 製法, 用量, 煎湯法과 服用法은 다음과 같다. (표 2)

處方	분류	活用범위	製法 用量	煎湯法	服用法
桂枝去芍藥加附子湯		太陽	炮1枚	水煎,以水七升煮取三升	溫服一升
桂枝加附子湯		太陽	炮1枚	水煎,以水七升煮取三升	溫服一升
甘草附子湯		太陽	炮2枚	水煎,以水六升煮取三升	溫服一升-六七合
桂枝附子湯		太陽	炮3枚	水煎,以水六升煮取二升	溫服二升分三服
去桂加白朮湯		太陽	炮1枚	水煎,以水六升煮取二升	溫服二升分三服
麻黃附子細辛湯		少陰	炮1枚	水煎,以水一斗 煮取三升	溫服一升
麻黃附子甘草湯		少陰	炮1枚	水煎,以水七升煮取三升	溫服一升
附子瀉心湯		太陽	炮2枚	三黃潰之須臾	內附子汁,沖服一升
附子湯		少陰	炮2枚	水煎,以水八升煮取三升	溫服一升,一分三服
芍藥甘草附子湯		太陽	炮1枚	水煎,以水五升煮取一升五合	溫服
眞武湯		太陽,少陰	炮1枚	水煎,以水八升煮取三升	溫分七合,日三服
烏梅丸		厥陰	炮1枚	丸	10-20 丸
四逆湯		太陽,陽明 三陰,霍亂	生1枚	水煎,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溫分服一升一合
四逆加人參湯		霍亂	生1枚	上同	上同
通脈四逆湯		少陰,霍亂	生1枚	水煎,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	溫分服一升一合
通脈四逆加豬膽汁湯		霍亂	生1枚	上同	上同,內豬膽汁沖服
茯苓四逆湯		太陽	生1枚	水煎,以水五升 煮取三升	溫服七合
白通湯		少陰	生1枚	水煎,以水三升 煮取一升	溫服五合
白通加豬膽汁湯		少陰	生1枚	水煎,以水三升煮取一升	溫服五合 內豬膽汁,人尿沖服
乾薑附子湯		太陽	生1枚	水煎,以水三升煮取一升	溫服一升,頓服

III. 考 察

附子は 毛茛科(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 다년생 초목인 재배종 바꽃의塊根에 附生한 子根으로 辛大熱 有毒하며, 元陽을 보조하는 主약으로 能升能降하며 能內達能外散⁴⁾한 성질을 가진 陽中之陽의 약물이다. 固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²⁾하는 효능이 있어 大汗亡陽, 吐利厥逆, 心腹冷痛, 脾泄冷痢, 脚氣水腫, 風寒濕痺, 痿躄拘攣, 陰疽瘡漏, 中寒中風, 痰厥氣厥, 柔痙癰癩, 小兒慢驚⁵⁾ 등 일체의 沈寒痼冷之疾을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채취한 즉시 石灰로서 탈수 건조한 것을 生乾附子라 하고, 防腐(鹽)하여 판매하는 것을 鹽附子라 하며, 鹽附子を 炮製하여 活用하는 것을 炮附子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炮製한 것을 京炮附子라 한다.³⁾

<傷寒論>에서 附子 活用方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방 중 20방으로 약 18%를 차지하며, 附子 活用方의 해당 조문은 298조문 중 32조문으로 약 11%를 차지한다.

<傷寒論>에서 附子は 다른 20가지 약물과 配伍되어 活用되었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配伍를 살펴보면, 祛寒類 중에서 臟腑를 溫하게 하는 配伍로 附子-乾薑과 附子-白朮의 配伍가 있다. 이 중 附子-乾薑의 配伍는 附子 活用方 중 四逆湯類,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 乾薑附子湯, 烏梅丸의 8處方에 적용되어 回陽救逆과 溫中散寒의 중심配伍가 된다. 附子-白朮의 配伍는 溫腎健脾에 상용되는 配伍로 이 두 약물의 배합은 附子の 益火之原, 補火生土의 작용과 白朮의 溫脾燥濕, 運氣土臟을 活用하여 溫陽散寒의 힘을 증강시켜 脾腎兼治의 작용을 하게 하며 附子湯과 眞武湯에 活用되었다. 祛寒類 중 經絡을 溫하게 하는 配伍로 附子-桂枝, 附子-細辛의 配伍가 있다. 附子-桂枝의 配伍는

溫經通脈, 散寒止痛의 작용이 증강되어 寒濕痛痺로 인한 不能轉側, 骨節煩疼諸痛, 關節不得屈伸 등의 證狀을 치료하는데 活用되며 桂枝加附子湯,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附子湯에 活用되었다. 附子-細辛의 配伍는 임상에 있어 散寒止痛에 상용된다. 表裏內外의 寒을 치료하며 <傷寒論>에서는 麻黃附子細辛湯과 烏梅丸에서 쓰였다. 解表類 중에서 祛風散寒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麻黃의 配伍가 活用되었다. 이 配伍는 평소에도 陽虛한데 다시 風寒에 상했을 때 活用되며 麻黃附子細辛湯과 麻黃附子甘草湯에 活用되었다. 祛濕類 중에서 利水除濕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茯苓의 配伍가 活用되었다. 이 配伍의 작용은 첫째, 溫腎利水하여 陰水證에 活用하여 脾腎陽虛하여 水氣가 內停하여 나타나는 諸證에 活用되는데 眞武湯에서 活用되었다. 둘째는 溫陽散寒, 除濕止痛하여 陽虛寒濕身痛證에 活用되었는데 附子湯이 이에 해당된다. 瀉下類 중에서 溫下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大黃이 活用되었다. 임상에 있어 상용하는 配伍로 이 약물이 상합한 즉 苦辛通降하고 공히 寒實을 攻下하므로 附子瀉心湯에 活用되었다. 이때 附子瀉心湯에서는 大黃, 黃連, 黃芩을 잠깐 동안 끓는 물에 담궈 氣味の 淸薄함을 취하여 瀉痞에 중심을 두었다. 調和類 중에서 調和腸胃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黃連의 配伍가 活用되었다. 이 配伍는 水火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나 寒熱이 병용되어 陰陽相濟의 뜻이 있다. 임상에 있어 虛實과 寒熱이 협잡한 熱結心下, 腕腹痞悶作痛, 泄瀉不暢, 嘔惡心煩, 陽虛不固, 汗多溫寒, 肢冷脈弱 등에 活用되며, 附子瀉心湯에 活用되었다. 補益類 중에서 補氣補陽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人蔘이 活用되었다. 이 配伍는 위로는 心陽을 돕고 아래로는 命門을 보하고 중으로는 脾土를 補益하는 효능이 있어 正氣大虧하고 陽氣가 暴脫하여 일어나는 諸證狀을 치료할 때 주로 된다. 傷寒論에서는 茯苓四逆湯, 附子湯, 烏梅丸에서 活用되었다. 補益類 중에서 氣血陰陽兼補에 해당하는 配伍로 附子-芍藥이 活用되었다. 이 配伍는 一陰一陽, 一寒一熱, 一收一散, 剛

中有柔，動中有靜의 陰陽調和가 있어 溫陽散寒하되 陰血을 상하지 않게 한다. <傷寒論>에서는 附子湯과 眞武湯에서 活用되었다.

<傷寒論>에서 附子は 太陽，陽明，三陰，霍亂의 범위에서 活用되었는데，이를 함께 活用된 약물의 치료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附子가 解表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桂枝去芍藥加附子湯，桂枝加附子湯，麻黃附子細辛湯，麻黃附子甘草湯이 해당된다. 둘째，附子가 除濕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桂枝附子湯，去桂加白朮湯，甘草附子湯，附子湯이 이에 속한다. 셋째，附子가 泄熱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附子瀉心湯이 이에 속하며 熱痞에 表陽虛를 겸하였을 때 活用하였다. 넷째，附子가 化氣行水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眞武湯이 이에 속한다. 다섯째，附子가 溫中散寒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傷寒論>에서 附子를 운용한 내용의 핵심이 된다. 乾薑附子湯，茯苓四逆湯，四逆湯，四逆加入參湯，通脈四逆湯，通脈四逆加豬膽汁湯，白通湯，白通加豬膽汁湯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附子가 益陰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芍藥甘草附子湯이 이에 속한다. 일곱째，附子가 安蛔止痛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烏梅丸이 이에 속한다.

<傷寒論>에서 附子の 製法，用量，煎湯法 및 服用法の 특징을 살펴보면，製法에 있어 生附子를 活用할 경우에는 반드시 乾薑과 配伍하였다. 이는 生附子和 乾薑이 配伍時 除毒의 효능이 있고，생 것이 약력이 峻猛하여 단지 1枚만이 活用되었고，活用된 證狀이 대부분 급하며 陽亡欲脫，回陽救急의 증에 다용되며 대부분 久煎하여 역시 除毒의 효능을 돕는다. 炮附子를 活用할 경우에는 生薑과 동용하였다. 炮附子は 生附子에 비하여 그 성이 완만하며，溫經散寒，風濕水氣，陽虛陰盛 등 증에 活用하였다. 用量에 있어서는 1枚에서 3枚까지 다양하며 대소의 구별도 있다. 이는 병자의 체질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니 이를 “因人因病制意”의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附子를

去皮하고 8조각으로 나누는데 이는 活用하는 약제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附子の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附子の 독성을 감소시키는 현대의 附子片을 活用하는 원리와 같다. 煎湯法에 있어서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別煎取汁”의 방법으로 附子瀉心湯에 活用되는 방법으로 辛熱한 약의 두터움을 얻어 溫經扶陽하며 固表하게 한다. 둘째는 다른 약과 같이 끓이는 방법으로 선후의 구별이 없이 시간의 장단만 틀리다. 服用法은 溫服한다. 裏寒이 심하여 拒否가 있는 즉 한랭한 약물로써 “反佐”하게 한다. 白通加豬膽汁湯 등과 같이 熱藥 중에 豬膽汁과 人尿를 가미하여 鹹寒苦降을 취하여 陽藥을 이끌어 陰中으로 들어가 熱藥이 陰寒의 格拒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 回陽破陰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복용횟수에 있어서 頓服，日二服，日三服 등으로 다르며，服用量에서도 五合에서 一升餘로 이는 각각의 체질의 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의거한 것이다.

<傷寒論>에서 附子 活用方에 活用된 구성약물의 活用빈도(괄호 안의 숫자)를 보면 甘草(12)，乾薑(9)，桂枝(5)，生薑(5)，芍藥(5)，大棗(4)，白朮(4)，茯苓(3)，人參(3)，麻黃(2)，細辛(2)，豬膽汁(2)，葱白(2)，大黃(1)，黃連(1)，黃芩(1)，烏梅(1)，當歸(1)，蜀椒(1)，黃柏(1)，黃精(1)이 活用되었다.

處方 및 配伍 약물의 加減을 중심으로 附子 活用方을 분석해 보면，桂枝湯의 加減을 중심으로 한 處方이 4개，乾薑附子湯에 가한 處方이 7개，附子-麻黃의 配伍를 중심으로 한 處方이 2개，附子-白朮의 配伍를 중심으로 한 處方이 3개，기타가 3개이다. 따라서，附子 活用方の 중심은 乾薑附子湯을 축으로 하는 四逆湯類라고 할 수 있다.

附子 活用方이 치료할 수 있는 心系領域 질환은 動悸，浮腫，眩暈，昏迷，痺，厥冷이 해당된다. 임상에서 麻黃附子細辛湯과 眞武湯이 다양한 病證에 應用되는데 麻黃附子細辛湯은 暴瞽，暴盲，안고한 寒熱，嗜睡，心悸，피부소양증에，眞武湯은 혈전폐색성맥관염，陰囊腫大，水腫，眩暈，고혈압，류

머티스성 심장병, 徐脈, 腎虛泄瀉 등에 應用되었다.

IV. 結 論

<傷寒論>에서의 附子 活用예를 통한 心系領域의 附子 응용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附子 活用方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방 중 20방으로 약 18%를 차지하며, 附子 活用方의 해당 조문은 298조문 중 32조문으로 약 11%를 차지한다.
2. 附子は 다른 20가지 약물과 配伍되어 活用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配伍를 살펴보면, 祛寒類 중에서 臟腑를 溫하게 하는 附子-乾薑과 附子-白朮의 配伍, 祛寒類 중 經絡을 溫하게 하는 附子-桂枝, 附子-細辛의 配伍, 解表類 중에서 祛風散寒에 해당하는 附子-麻黃의 配伍, 祛濕類 중에서 利水除濕에 해당하는 附子-茯苓의 配伍, 瀉下類 중에서 溫下에 해당하는 附子-大黃의 配伍, 調和類 중에서 調和腸胃에 해당하는 附子-黃連의 配伍, 補益類 중에서 補氣補陽에 해당하는 附子-人蔘의 配伍, 補益類 중에서 氣血陰陽兼補에 해당하는 附子-芍藥의 配伍가 活用되었다. 이 중 附子-乾薑의 配伍는 附子 活用 20방 중 四逆湯類,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 乾薑附子湯, 烏梅丸의 8處方에 적용되어 回陽救逆과 溫中散寒의 중심配伍가 된다.
3. 附子와 함께 活用된 약물의 치료 범위는 7가지로 나누어지며, 첫째, 附子가 解表약물과 함께 活用된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加附子湯,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둘째, 附子가

除濕약물과 함께 活用된 桂枝附子湯, 去桂加白朮湯, 甘草附子湯, 附子湯, 셋째, 附子가 泄熱약물과 함께 活用된 附子瀉心湯, 넷째, 附子가 化氣行水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眞武湯, 다섯째, 附子가 溫中散寒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것으로 <傷寒論>에서 附子를 운용한 내용의 핵심이 된다. 乾薑附子湯, 茯苓四逆湯, 四逆湯, 四逆加人蔘湯, 通脈四逆湯, 通脈四逆加豬膽汁湯, 白通湯, 白通加豬膽汁湯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 附子가 益陰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芍藥甘草附子湯, 일곱째, 附子가 安蛔止痛하는 약물과 함께 活用된 경우로 烏梅丸이 이에 속한다.

4. 附子 製法の 특징은 生附子를 活用할 경우에는 반드시 乾薑과 配伍하였다. 이는 生附子和 乾薑이 配伍時 除毒의 효능이 있고, 생것이 약력이 峻猛하여 단지 1枚만이 活用되었고, 活用된 證狀이 대부분 급하며 陽亡欲脫, 回陽救急의 증에 다용되며 대부분 久煎하여 역시 除毒의 효능을 돕는다. 炮附子를 活用할 경우에는 生薑과 동용하였다. 炮附子는 生附子에 비하여 그 성이 완만하며, 溫經散寒, 風濕水氣, 陽虛陰盛 등 증에 活用하였다.
5. 附子の 用量에 있어서 특징은 1枚에서 3枚까지 다양하며 대소의 구별도 있는데 이는 병자의 체질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따라 적절히 운용됨을 말한다. 附子를 去皮하고 8조각으로 나누는데 이는 活用하는 약제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附子の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附子の 독성을 감소시키는 현대의 附子片을 活用하는 원리와 같다.
6. 煎湯法에 있어서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別煎取汁”의 방법으로 附子瀉心湯에 活用되는 방법으로 辛熱한 약의 두터움을 얻어 溫

經扶陽하며 固表하게 한다. 둘째는 다른 약과 같이 끓이는 방법으로 선후의 구별이 없이 시간의 장단만 틀리다.

7. 附子를 사용할 때 裏寒이 심하여 온복하기에 拒否가 있을 때는 한량한 약물로써 “反佐”하게 한다. 白通加豬膽汁湯 등과 같이 熱藥 중에 豬膽汁과 人尿를 가미하여 鹹寒苦降을 취하여 陽藥을 이끌어 陰中으로 들어가 熱藥이 陰寒의 格拒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 回陽破陰작용을 발휘하게 하였다.

복용횟수에 있어서 頓服, 日二服, 日三服 등으로 다르며, 服用量에서도 五合에서 一升餘로 이르는 각각의 체질의 강약과 病情의 완급에 의거한 것이다.

8. 附子 活用方에 活用된 구성약물의 活用빈도(괄호 안의 숫자)를 보면 甘草(12), 乾薑(9), 桂枝(5), 生薑(5), 芍藥(5), 大棗(4), 白朮(4), 茯苓(3), 人參(3), 麻黃(2), 細辛(2), 豬膽汁(2), 葱白(2), 大黃(1), 黃連(1), 黃芩(1), 烏梅(1), 當歸(1), 蜀椒(1), 黃柏(1), 黃精(1)이 活用되었다.

9. 處方 및 配伍 약물의 加減을 중심으로 附子 活用方을 분석해 보면, 桂枝湯의 加減을 중심으로 한 處方이 4方, 乾薑附子湯에 가한 處方이 7方, 附子-麻黃의 配伍를 중심으로 한 處方이 2方, 附子-白朮의 配伍를 중심으로 한 處方이 3方, 기타가 3方이다. 따라서, 附子 活用方의 중심은 乾薑附子湯을 축으로 하는 四逆湯類라고 할 수 있다.

10. 附子 活用方이 치료할 수 있는 心系領域 질환은 動悸, 浮腫, 眩暈, 昏迷, 痺, 厥冷이 해당되었고, 최근에는 麻黃附子細辛湯은 暴瞼, 暴盲, 완고한 寒熱, 嗜睡, 心悸, 피부소양증에 應用되었고, 眞武湯은 혈전폐색성맥관염, 陰囊腫

大, 水腫, 眩暈, 고혈압, 류머티스성 심장병, 徐脈, 腎虛泄瀉 등에 應用되었다.

이상에서 心系領域 질환에 附子를 活用할 때 仲景의 附子 活用法을 참고하고 해당 病證에 의거하여 앞으로 많은 임상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록> 『傷寒論』 중 부자 활용방의 조문과 처방내용

1. 桂枝加附子湯

1) 條文 20.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因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2) 處方 :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三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附子一枚(炮去皮 破八片) 上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將息如前法.

2. 桂枝去芍藥加附子湯

1) 條文 21. 太陽病 下之後 脈促胸滿者 桂枝去芍藥湯主之 若微惡寒者 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

2) 處方 : 桂枝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加附子一枚(炮去皮破八片) 上五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3. 甘草附子湯

1) 條文 175. 風濕相搏, 骨節煩疼, 掣痛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短氣, 小便不利, 惡風不欲去衣, 或身微腫者, 甘草附子湯主之.

2) 處方 : 甘草二兩(炙) 附子二枚(炮去皮 破) 白朮二兩 桂枝四兩. 上四味, 以水六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初服得微汗則解. 能食汗出復煩者, 將服五合, 恐一升多者, 宜服六七合者爲妙.

4. 桂枝附子湯

5. 去桂加白朮湯

1) 條文 174.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煩，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澀者，桂枝附子湯主之。若其人大便硬，小便自利者，去桂枝加白朮湯主之。

2) 處方

桂枝附子湯：桂枝四兩 附子三枚(炮 去皮破八片)，生薑三兩 甘草二兩(炙)，大棗十二枚(擘) 上五味，以水六升，煮取二升，去滓，分溫三服。

去桂枝加白朮湯方：附子三枚(炮，去皮破) 白朮四兩 生薑三兩(切) 甘草二兩(炙) 大棗十二枚(擘) 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初一服 其人身如痺 半日許復服之 三服都盡 其人如晷狀 勿怪 此以附子 朮并 走皮內 逐水氣未得除 故使之耳 法當加桂四兩 此本一方二法：以大便硬 小便自利 去桂也；以大便不硬 小便不利 當加桂 附子三枚 恐多也 虛弱家及產婦 宜減服之。

6. 麻黃附子細辛湯

1) 條文 301. 少陰病，始得之，反發熱，脈沈者，麻黃附子細辛湯主之。

2) 處方：麻黃二兩(去節)，細辛二兩，附子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三味，以水一斗，先煮麻黃，減二升，去上沫內藥，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7. 麻黃附子甘草湯

1) 條文 302. 少陰病，得之二三日，麻黃附子甘草湯微發汗，以二三日無裏證，故微發汗也。

2) 處方：麻黃二兩(去節)，甘草二兩(炙)，附子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三味，以水七升，先煮麻黃一兩沸，去上沫，內諸藥，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8. 附子瀉心湯

1) 條文 155. 心下痞，而復惡寒汗出者，附子瀉心湯主之。

2) 處方：大黃二兩 黃連一兩 黃芩一兩 附子二枚(炮 去皮波 別煮取汁) 上四味 切三味 以麻沸湯 二升漬之須臾 絞去滓 內附子汁 分溫再服。

9. 回逆湯

10. 回逆加人蔘湯

1) 條文 29.……若重發汗，復加燒針者，四逆湯主之。

91. 傷寒，醫下之，續得下利清穀不止，身疼痛者，急當救裏；後身疼痛，清便自調者，急救表。救裏，宜四逆湯；救表，宜桂枝湯。

92. 病發熱頭痛，脈反沈，若不差，身體疼痛，當救其裏，宜四逆湯。

225. 脈浮而遲，表熱裏寒，下利清穀者，四逆湯主之。

323. 少陰病，脈沈者，急溫之，宜四逆湯。

324. 少陰病，飲食入口則吐，心中溫溫欲吐，復不能吐，始得之，手足寒，脈弦遲者，此胸中實，不可下也，當吐之；若膈上有寒飲，乾嘔者，不可吐也，當溫之，宜四逆湯。

353. 大汗出，熱不去，內拘急，四肢疼，又下利厥逆而惡寒者，四逆湯主之。

354. 大汗，若大下利而厥冷者，四逆湯主之。

372. 下利腹脹滿，身體疼痛者，先溫其裏，乃攻其表。溫裏，宜四逆湯；攻表，宜桂枝湯。

377. 嘔而脈弱，小便復利，身有微熱，見厥者難治，四逆湯主之。

388. 吐利汗出，發熱惡寒，四肢拘急，手足厥冷者，四逆湯主之。

389. 既吐且利，小便復利而大汗出，下利清穀，內寒外熱，脈微欲絕者，四逆湯主之。

385. 吐利惡寒 脈微而復利，利止亡血也，四

逆加入參湯主之

2) 處方

四逆湯：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上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再服。強入可大附子一枚 乾薑三兩

四逆加入參湯：甘草三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人參一兩 上四味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再服。

11. 通脈回逆湯

12. 通脈回逆加豬膽汁湯

1) 條文 317. 少陰病，下利清穀，裏寒外熱，手足厥逆，脈微欲絕，身反不惡寒，其人面赤色，或腹痛，或乾嘔，或咽痛，或利止脈不出者，通脈四逆湯主之。

390. 吐已下斷，汗出而厥，四肢拘急不解，脈微欲絕者，通脈四逆加豬膽汁湯主之。

2) 處方

通脈四逆湯：甘草二兩(炙) 附子大者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乾薑三兩(強人四兩) 上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再服。其脈即出者愈。/ 面色赤者 加蔥九莖/ 腹中痛者 去蔥 加芍藥二兩/ 嘔者 加生薑二兩/ 咽痛者 去芍藥 加桔梗一兩/ 利止脈不出者 去桔梗 加入參二兩/ 脈病皆與方相應者 乃服之。

通脈回逆加豬膽汁湯：上加豬膽汁 半合 上四味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內豬膽汁 分溫再服。其脈即來 無豬膽 以羊膽代之。

13. 茯苓回逆湯

1) 條文 69. 發汗，若下之，病仍不解，煩燥者，茯苓四逆湯主之。

2) 處方：茯苓四兩 人參一兩 甘草二兩(炙) 乾薑一兩半 附子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上五味，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七合，日三服。

14. 白通湯

15. 白通加豬膽汁湯

1) 條文 314. 少陰病，下利，白通湯主之。315. 少陰病，下利，脈微者，與白通湯。利不止，厥逆無脈，乾嘔煩者，白通加豬膽汁湯主之。服湯，脈暴出者死，微續者生。

2) 處方

白通湯：蔥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生用 去皮 破八片) 上三味，以水三升，煮取一升，去滓，分溫再服。

白通湯加豬膽汁湯：蔥白四莖 乾薑一兩 附子一枚(生 去皮 破八片) 人尿五合 豬膽汁一合 上三味，以水三升，煮取一升，去滓，內膽汁人尿，和令相得，分溫再服，藥無膽亦可用。

16. 乾薑附子湯

1) 條文 61. 下之後，復發汗，晝日煩躁不得眠，夜而安靜，不嘔，不渴，無表證，脈沈微，身無大熱者，乾薑附子湯主之。

2) 處方：乾薑一兩 附子一枚(生用 去皮 切八片) 右二味，以水三升，煮取一升，去滓，頓服。

17. 附子湯

1) 條文 304. 少陰病，得之一二日，口中和，其背惡寒者，當灸之，附子湯主之。

305. 少陰病，身體痛，手足寒，骨節痛，脈沈者，附子湯主之。

2) 處方：附子二枚(炮 去皮 破八片) 茯苓三兩 人參二兩 白朮四兩 芍藥三兩 上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日三服。

18. 芍藥甘草附子湯

1) 條文 68. 發汗，病不解，反惡寒者，虛故也。芍藥甘草附子湯主之。

2) 處方：芍藥三兩 甘草三兩(炙) 附子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三味，以水五升，煮取一升五

合，去滓，分溫服。

19. 眞武湯

1) 條文 82. 太陽病發汗，汗出不解，其人仍發，心下悸，頭眩身瞤動，振振欲擗地者，眞武湯主之。

316. 少陰病，二三日不已，至四五日，腹痛，小便不利，四肢沈重疼痛，自下利者，此爲有水氣，其人或咳，或小便利，或下利，或嘔者，眞武湯主之。

2) 處方：茯苓 芍藥 生薑(切)各三兩 白朮二兩 附子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五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分七合 日三服 /若咳者加五味子半升 細辛一兩 乾薑一兩 /若小便利者 去茯苓 /若下利者 去芍藥加乾薑二兩 /若嘔者 去附子加生薑 足前爲半斤。

20. 烏梅丸

1) 條文 338. 蚘厥者，其人 當吐蚘。今病者靜，而復時煩者，此爲藏寒，蚘上入膈，故煩，須臾復止，得時而嘔又煩者，蚘聞食臭出，其人當自吐蚘。蚘厥者，烏梅丸主之。又主久利。

2) 處方：烏梅 三百枚 細辛六兩 乾薑十兩 黃連十二兩 當歸四兩 附子(炮 去皮) 蜀椒(汗出¹⁾)四兩 桂枝六兩 人參六兩 黃柏六兩 上十味 異擣篩²⁾ 合治之 以苦酒漬烏梅一熟 蒸之 五斗米下 飯熟擣成泥 和藥令相得 內臼中 與蜜杵二十下 丸如梧桐子大 先食飲服十九日 三服 稍加至二十丸 禁生冷滑物臭食等。

1) 湖北中醫學院主編，前揭書，p269：出汗은 油質이 滲出되기까지 微火로 炒하는 것을 말한다.

2) 湖北中醫學院主編，前揭書，p269：各 藥物을 區別하여 擣는 것을 말한다.

參考文獻

1. 北京中醫學院 編，中醫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9；21.
2. 辛民教，臨床本草學，서울：永林出版社，1988；263~4.
3. 申佶求，申氏本草學，서울：壽文社，1988；23~4.
4.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 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1985；97.
5. 李時珍，本草綱目(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1161.
6. 김창민 외, 완역中藥大辭典, 서울：정담, 1998；2402~3.
7. 谿忠人，漢方藥の藥能と藥理，東京：南山堂，1991；44.
8. 崔樹德，中藥大全，河北：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1989；346.
9. 梁吉承，부자 부타늘 分割이 心筋 收縮蛋白에 미치는 影響, 서울, 大韓藥理學雜誌, 1976；12(1)；1~6.
10. 矢數道明，陰證の浮腫，腹水に對す附子の利尿效果につらてね，日本東洋醫學會誌，1976；14(4)；241~245.
11. 張仲景，康平傷寒論，湖南：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8.
12. 杜雨茂，傷寒論條文表解，서울：一中社影印，1992；59.
13. 全國韓醫科大學 心系內科學教室編，東醫心系內科學 上下，서울：書苑堂，1995.
14. 李歸昉，浙江中醫藥，1958；10；34.
15. 湖北中醫學院主編，傷寒論講義，湖南：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6；33，85，91，119~120，223，236，240~1，269，308.
16. 鄧子光 外，傷寒論湯證新編，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3；26，233，273~4，282，298~9.
17. 柯琴，傷寒來蘇集，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218，221，224~5，247~8，251.
18. 朴盛洙，現代漢方講座，서울：杏林出版社，

- 1992; 14.
19. 吳謙 等編, 醫宗金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5, 225~6, 231, 329.
 20. 尤在涇,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38, 83, 153~4, 171.
 21. 江玉平, 麻黃附子細辛湯治暴聾暴盲1例, 四川中醫, 1995; 10; 49.
 22. 黃啓疇, 麻黃附子細辛湯爲主治療頑固性寒熱43例, 四川中醫, 1995; 12; 31.
 23. 林中慈, 麻黃附子細辛湯治驗二則, 四川中醫, 1995; 5; 36.
 24. 吳自力, 麻黃附子細辛湯治驗, 北京中醫, 1996; 1; 60.
 25. 章虛谷, 醫門棒喝 下, 서울: 大成文化社影印, 1989; 449, 454.
 26. 李心機, 傷寒論一方兩法探, 山東中醫學院學報, 1995; 2; 98.
 27. 陳維華 外, 藥對論, 安徽: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4; 43~4, 53~4, 56~7, 59~61, 105~6, 127, 173, 216, 236.
 28. 周連三, 中醫雜誌 1965; 9; 20.
 29. 南昌, 眞武湯新用, 江西中醫藥, 1997; 6; 16.
 30. 劉尚清, 眞武湯臨床新用舉隅, 吉林中醫藥, 1995; 3; 33.
 31. 朱近人, 眞武湯加味治療心衰33例, 實用中西醫結合雜誌, 1995; 7; 443.
 32. 孫福成, 傷寒論運用附子之特色, 四川中醫, 1995; 6; 16.